

대행 스님

모두가 나 하나로 뭉쳐서 나 하나도 세울 게 없다

마음이 부처라고 한다면, 마음이라는 게 이상야릇하게 생각 내는 것이 아니라 생각나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말해 줄 수 없어서…. 생각 내는 것이 아니라 생각나는 것입니다. 생각나는 것에 의해서 생각을 또 내게 되죠. 그래서 생각 내기 이전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살아나가는 데도 스스로 마음 가운데에서 느낌으로 이렇게 생각이 저절로 나는 게 있고, 또 우리가 생각을 내서 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티끌 하나 걸리지 않아야 된다는 뜻이죠. 그러면 의정도 없어지는 겁니다. 의정이 없어질 때까지 우리는 이날까지 역설을 했고 또 여러분 앞에 많은 말을 안 했다는 것은 했다는 거와 진배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했대도 아니 되고 했대도 아니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면 뭘로 증명을 할까?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어저께 것도 내일 할 거 걱정도 없이 말입니다.

그런데 앞에 앉아 있는 학생을 위해서 한 가지 얘기해 주지. 공만 알았지 나투는 방법을 우리가 생각지도 못해. 모두가 나 하나로 뭉쳐서 나 하나도 세울 게 없다는 뜻은 무엇인가. 금방 엄마하고 만났을 때, 금방 만났을 때에 둘이 되었는데 금방 나 혼자 있으니까 혼자가 됐단 말이야. 그래 또 비켜 놓고 또 이모를 만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생각해 봐. 나 하나라고 그래서 하나만이 아니라 모두가, 일체 만물만생이 나투면서 같이 돌아가. 나투며 화하면서 창조하면서…. 그래서 그 뜻을 여러 귀종 성현들이 별의별 수단을 다 써서 수좌들한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무척 애를 썼다고 보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 옛날에도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서천의 호자(胡子)는 어찌 수염이 없는고?" 하고서 수좌들한테 물은 바도 있거든요. 그 소리가 무슨 소리냐 하면 "달마는 어째 수염이 없는고?" 하는 거나 똑같아요. 서천이라는 거는 중국에서 인도를 서쪽으로 보니까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호인이라고 불렀으니 호자를 넣어서 자를 붙인 거죠. 그렇게 내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것을 왜 그렇게 입담 좋게 그런 말들을 자꾸 건넸던가? 그래서 그것을 대답을 할 때 말이 없이 하지도 말고 말이 있이 하지도 말라. 사람도 때에 따라서 다양하게 '묻는 사람이 누구인가? 또 어떠한 차원에 있는 사람인가? 아리송한 사람인가?' 이거를 봐서 되받아서 질문할 수도 있는 거며 또는 거기에서 대답 없이 대답을 할 수도 있는 그러한, 서로가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대답을 할 수 있는 거거든.

우리가 지금 이 마음으로 말없이 여러분한테 이런 말을 하죠. 듣기 싫은 말은 남편에게도 하지 말고 아내에게도 하지 말고 자식에게도 하지 말고 인의롭게 슬슬 돌려서 좀 거북하게 걸리지 않도록 말을 잘해 주면서 안으로 굴리라고요. 안으로 굴리는 그 마음은 절대적으로 그쪽 마음으로 전달이 되거든요. 왜? 내가 그쪽을 생각하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대의 선지식들도 부처님도 역대 조사들도 다 마음과 마음을 전달해서 우리가 한마음이라는 거지, 마음과 마음이 전달이 되지 않는다면 한마음이라고 할 수도 없거니와 진리라고도 할 수 없고 또는 묘법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역대의 조사들이 어찌 쓰러져 가면서, 불을 태우면서 온갖 노력을 다해서 그 공부를 했겠습니까?

여러분이 속가에서 사는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승려 노릇을 하고 사는데 입산을 한 스님네들이나 입산을 안 한 여러분이나 생각을 가만히 해 보세요. 어떠한 것을, 공장을 하나 하든지 무슨 기술을 하나 배우든지 피나는 노력을 안 하고는 돈을 벌 수도 없거니와 기술도 배울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과목이든지 어떠한 부분이든지 어떠한 기술이든지, 공장을 하든지 과학자든지 철학자든지 또 행정과목이든지 뭐든지, 하여튼 피나는 노력이 아니라면 그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흥청망청 흥청망청 해 나가다가 보면 그냥 흐지부지해 버리고 망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집안이 망하는 거죠. 집안이 망하면 나라도 좋지 못해. 나라도 망해. 인군이 마음이 흔들리면 신하도 마음이 흔들리고 국민이 마음이 흔들리고 전부 안 돼. 그렇듯이 이 몸에도 지금 내 오장육부 속에 세포를 통해서 수많은 생명들이 있는데 내 한생각이 흔들린다면 그것들이 다 흔들려서 내 집안은 망하게 되는 거지. 내 육신이 망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 작든 크든 내 몸으로나 가정으로나 또는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 우주적으로 전체가 우리는 거기 환경에 따라서 나투면서야, 가정에 들어와선 내 가정, 몸으로 봐서는 내 몸, 또 사회에 나가선 국가, 이렇게 모든 것을 다양하게 해 나갈 수 있는 이 나툼이, 옮겨 다니면서 수없이 천차만별로 생각 생각 해 가면서 성품의 활용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스님네들도 그렇고 공부하는 여러분도 그렇고 피나는 노력이 아니라면…. "노력하는 것도 놔라" 하는 것이 그걸 놓고 노력을 하라 이겁니다. 노력하는 것마저도 놓고 노력하라. 하지 말되 하고 하되 하지 말라. 노력하고 하고 하고, 세 마디만 하면 벌써, "안 하고" 하면 부정이지만 또 "안 하고" 하면 긍정적으로 하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안 하되 하고, 하되 안 하라. 놔라. 놓되 해라. 이 모두가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각자 내 마음은 내가 아는 거라. 그런데 내 마음도 내가 모르니까 그 마음을 알자고 해서 지금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 도리를, 내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다면 세세생생에 우리가, 했던 말 항상 하지마는, 야! 그걸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모르고 또 옷을 벗고 모르고 또 옷을 벗고, 그러면서 좌천돼서 이 모습으로 저 모습으로 끌려 다니면서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어차피 여러분이 사시면서 돈을 벌려고 또는 살 양으로 피나는 노력을 하는 것은…, 우리 스님네들은 그것을 떠나서 노력을 또 해서, 똑같은 노력이라면 참으뜸나가는 노력이죠, 지름길이고.

그런데 '내가 그럼 지름길로 빨리 입산을 해야겠다. 그랬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러한 욕심도 없어서는 아니 되지만, 앞에 있는 걸 버리고 내가 먼 데 있는 거 좋은 거 찾으려고 하다가는 구덩이에 빠지거든. 그런 인정, 도리, 의, 사랑 이런 걸 모르고서야 어찌 도를 이루겠습니까? 앞에 있는 거 다 팽개치고. 옛날에는 사명 대사나 그런 분들은 다 팽개치고 갔다지만 팽개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니깐 팽개친 거지, 환경도 되질 않는 걸 억지로, 강제로 팽개치고선 내가 도를 이루겠다고 달아나가 봤자지. 자기에게 주어진 대로….

어저께도, 그저껜가 그끄저껜가 얘기했지만, 말 한마디 잘못 대답해 가지고서 여우의 몸을 받아 가지고 오백 생을 지냈다는데, 왜 울고불고하면서 간절히 그 여우 몸을 벗으려고 무척 애를 썼을까? 어차피 여우 몸으로 바뀌었다면 여우로서 이 우주를 통치해서 그냥 집어삼킨다면, 여우의 몸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그 도리를 모르는 것보다도 더 위세 있지 않을까? 내가 여우의 몸으로 이렇게 받으니까 고생이 되지, 여우의 몸으로 받아서 여우로서 지내는 그 삶도 자기가 착을 버리고 여우라는 그런 생각도 없었다면 아마도 여우로서 온 우주를 활보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스스로서 모습도 여우의 모습만 되겠습니까? 나는 어떤 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가 무슨 모습이라고 할꼬?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할꼬?' 이 세상에 구더기도 마다하지 않았는데…. '구더긴들 어떠랴.' 이거야. 구더기면 똥통 안에 들어가서도 구더기기 때문에 그 구린내가 아주 좋은 요리 냄새로 되거든. 그러니 구더기도 구더기로 된다고 애타할 것도 없는 거지.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까? 인과를 받아서 잘못될까? 좌천이 돼서 어떠한 모습으로 또 나오면 어쩌나. 또 앞으로 고를 받으면 어쩌나.' 이런 것도 모든 걸 놔 버려야 해요. 순리적으로 물 흐르는 대로 흘러서 내가 뭐가 되든지 뭐 그렇게 걱정이 됩니까? 우리 인간으로서 보자면 벌레를

☞ A18면으로 계속

그림 · 최주현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인증 승려연수과정

2019년 승려연수과정 수강생 모집
현대인을 위한 포교 – 생활 속 마음공부



일 정 2019년 5월 16일(목) ~ 18일(토) 2박 3일
장 소 경주 황룡원(경북 경주시 엑스포로 40(지번) 신평동 150-8)
교 육 비 20만원
정 원 50명(선착순 마감)
문 의 031-470-3200(월요일 휴무)
웹사이트 http://edu.hansi.org

▶ 내면의 불성을 발견하고 마음의 힘 회복하기
▶ 지혜로운 소통으로 가정, 사찰, 사회에서 갈등을 해소하기
▶ 삶의 의미와 행복 찾기
▶ 법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

5월 16일	5월 17일	5월 18일
마음공부와 치유	생활속 마음공부 : 원리와 방법1	특강 : 마음과 과학
주인공 관법 (한마음공생실천교육과정)	원리와 방법2 (둘 아닌 도리)	
	포교 및 활동사례	

교 재 건널강이 어디 있으랴(한마음출판사), 행복한 부모를 위한 마음공부(학지사/조계종 포교원 인증)
참고도서 꽃을 피우는 나무(학지사/조계종 포교원 인증) / 둥근 입으로 둥글게 말해 주인공(성균관출판부) / 공부(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재단법인 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교육과정 확인 및 신청은 QR코드를 스캔하세요.